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혜림¹, 이래혁^{2*}

¹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²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The Influence of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on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Hae–Lim Chang¹, RaeHyuck Lee^{2*}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Jangsin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구축한 2020년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여부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89명의 조손가정 청소년 중 39%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했다. 또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불안과 스트레스의 점수가 높았고, 우울과 자살생각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조손가정 청소년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의 경험은 불안,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코로나19, 가정경제 악화, 정신건강, 조손가정,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on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used raw data from the 16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constructed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 2020 and analyzed the influence of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on anxiety,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e main results regarding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39% of 589 adolescent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experienced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Also, compared with adolescents who did not experience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those who experienced deterioration showed higher scores of anxiety and stress as well as higher percentages of experiencing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Second,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positively significantly influenced anxiety,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strategies to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in disaster like COVID–19 were discussed.

Key Words : COVID–19,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Mental Health, Grandparent–headed Families, Adolesc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oonchunhyang University Research Fund.

*Corresponding Author : RaeHyuck Lee(raehyucklee@sch.ac.kr)

Received February 10, 2022

Revised February 25, 2022

Accepted April 20,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조손가정은 5만 2천 951가구, 15만 1천 588명으로 보고되고 있다[1].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만 19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두 세대가 가정을 이루기에 아동·청소년 세대와 노인세대의 욕구를 모두 반영해야 하는 가족구조이지만, 한부모 가족과 같이 관련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가구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폭넓게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복합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취약계층일수록 아동·청소년일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가구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분석결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한부모 가구나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3] 취약계층의 경제적 악화로 인한 청소년 발달에 미친 영향이 규명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약계층 중 조손가정의 월 근로소득(221만 5천 원)은 비조손가정의 절반 수준(413만 7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4]. 조손가정은 근로소득이 낮으므로 생활비 역시 비조손가정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미디어 사용시간 등 보호와 감독 측면에서도 양부모 가정보다 조손가정 손자녀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경제의 악화는 가정 내 구성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은 단순히 이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정경제 악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교의 기능을 가정이 일부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조손가정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으리라 예상된다. 조손가정이기에 일반가정과 다른 경제적 악화와 심리적 위축 및 적절한 돌봄 부재로 발생하는 신체 건강과 정서문제 등에 더하여, 고연령인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채, 비대면 시기를 보내야 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기라 불릴만한 급변하는 심리 정서적 특성과 환경에 민감할 시기이다. 그리고 학업과 진로준비를 위한 지원과 경제적 투자가 특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는 등교중지와 지역사회 내 모든 조건이 록다운(lock-down) 된 상황에서 발달과업이 조금씩 유예된 상황이다.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적, 물적 자원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5]. 코로나 시기 동안 온라인 교육환경 변화와 관계단절을 경험하면서 이전과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축과 낮은 자존감, 인터넷 중독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 등이 증폭되었기에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6,7].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정신건강으로 사이버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77,683명이었던 반면 코로나 이후인 20년도부터 21년도 사이에 사이버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138,566명으로 7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 무엇보다 조손가정은 등본 등 행정서류에 부모가 남아 있기도 해서 기능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부재하지만 구조적으로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로 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부모가 경험하는 신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양육부담은 조손가정 청소년은 일찍 어른이 되는 성인역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조손가정의 열악한 상황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9] 관련한 지원은 부족하여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조손가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고 관련한 연구도 미흡하다.

1.2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부터 조손가정 청소년에게 보고된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 시기 동안 어떻게 심화하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험은 어떠한지를 규명함으로써 조손가정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미시적 혹은 거시적 차원의 보호요인을 찾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손가정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및

청소년 손자녀의 정신건강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는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문헌검토

2.1 코로나19와 청소년 정신건강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는 청소년의 삶과 발달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은 자원의 결핍 속에서 여실히 드러난 한계를 느끼며 심리적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 코로나19 시기 동안 발달과정에 놓인 청소년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그 영향이 성인기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0].

조손가정의 경우, 부모의 역할이 부재할지라도 때를 통해 얻게 되는 위로와 지지가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코로나 시기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활동 제한과 등교중지 속에서 청소년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 불안과 같은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11] 자원과 관계의 단절 속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코로나 시기 동안 발생한 보고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단절 및 결손 트라우마, 외로움, 고독과 소속감 결여로 인한 사회성 발달저해 등이었고[12], 사회적 격리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3].

실태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힘든 점은 우울감과 긍정적 정서의 저하, 무기력, 자살사고 등 심리적 어려움이었고, 이 같은 경향은 여자 청소년에게 더 높이 보고되었고, 저연령보다 후기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5].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고위험과 취약 청소년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보고되기에 이들을 위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성장 과정인 청소년기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감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코로나 시기 동안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위기가 취약계층에 심화한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청소년기 발달과업의 심리·사회적 변화에 따른 극단

적인 정서 경험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실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2 조손가정의 특성과 가정경제 악화 및 손자녀 정신건강

조손가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부모는 노년기 특성에 따른 신체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14], 손자녀의 발달에 필요한 양육과 보호도 병행해야 하기에 조부모의 부담은 부모 세대인 중장년보다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손자녀인 아동과 청소년은 조부모가 양육하기 이전부터 부모와의 관계, 부재, 방임 등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과 상처 등으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보이는데, 가정경제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이중고는 이 같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15]. 이 같은 이유로 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손자녀는 기능적 혹은 구조적인 부모 역할의 부재로 부정적 경험과 적절한 양육과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행동문제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6].

또한 조손가정은 조부모의 노화로 인한 건강 약화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적절한 양육방법과 지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17].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기는 진로를 위한 준비도 필요한 시기이기에 부모 역할과 도움의 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지만 조손가정은 특성상이 같은 부모 역할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조손가정에게 보고되는 문제는 경제적 악화로 인한 빈곤 문제와 함께 손자녀의 성인역 부담이 제기되고 있는데[8], 성인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부모의 특성에 따라 손자녀의 정서·행동문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8]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가 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은 소득계층별, 소득과 순자산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3][19].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집단으로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 저소득 가구와 한부모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취약함은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는데, 식품 불충분의 증가와 기부 음식과 관련한 비율이 이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더욱 취약한 계층

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는 감염과 관련한 불안과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하여 지면서 가정 내 불화와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와 같이 심리적 요인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가정경제 악화와 심리적 건강 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21].

선행연구에 의하면[22], 코로나 시기 동안 발생한 가정경제 악화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정경제 악화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외로움, 자살경향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문제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한부모 가정 등과 같은 가족구조일 때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입각하면 조손가정과 같이 자녀양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가족구조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과 청소년은 코로나 시기 동안 조손가정으로 인한 취약함과 발달과업 이행을 위한 여러 기회의 단절, 그리고 가정경제 악화로 인한 고충을 더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매해 조사하고 있는 청소년 건강행태 연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매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전국적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이다[23]. 청소년건강행태 2020년 조사의 경우 4월 재학생을 기준으로 전국단위 표본을 선정하여 조손가정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었다. 더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020년 8월에서 11월에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질문이 포함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전국적으로 표집된 설문조사 대상 청소년은 54,948명이었다. 이 중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조부나 조모 또는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 589명(1.07%)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3.2 분석변수

3.2.1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2020년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선행연구[22]를 기반으로 해당 질문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 0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 1로 이분변수로 조작화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는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3.2.2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은 병리적 증상이기 보다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간주한다[24,25].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심리정서적 상태로 정신건강을 측정했다[26,27].

첫 번째 정신건강 변수인 불안은 범불안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7) 척도로 측정되었다[23]. 응답 청소년은 “초초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등의 7개 질문에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0점)”에서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3점)”의 4점 척도로 응답했다. 본 연구는 7개의 질문의 총점($\alpha=.899$)을 분석에 사용하여 점수가 높으면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정신건강 변수인 스트레스는 평상 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묻는 단일 문항에 대하여 “전혀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 “대단히 많이 느낀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정신건강 변수인 우울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설문 시 이 문항은 없다(0)와 있다(1)로 조사되어 이분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울은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네 번째 정신건강 변수인 자살생각은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우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신건강행태조사에서 자살생각도 없다(0)와 있다(1)로 보고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3.2.3 통제변수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선행연구[22][26,27]를

기반으로 다음의 변수들을 분석에서 통제하였다. 성별은 여자(0)와 남자(1)로 측정했고, 학교급은 중학교(0)와 고등학교(1)로 조작화했다. 학업성적, 가정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1점에서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으면 각각의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역은 대도시(1), 중소도시(2), 군지역(3)으로 측정하였고, 회귀분석 시 대도시 범주를 기준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두 범주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유형은 조부모가정(1), 조모가정(2), 조부가정(3)으로 조작화하였고, 회귀 분석 시 조부모가정을 기준 범주로 제외하고 나머지 범주 각각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구에 활용된 모든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가구경제 악화 여부에 따라 정신건강 변수의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도 수행하였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가구경제 악화 여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 회귀분석(불안과 스트레스)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우울과 자살생각)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버전 25.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5. 연구결과

5.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조손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성별은 여자가 292명(49.6%), 남자가 297명(50.4%)으로 비슷했다. 학교급은 중학생 279명(47.4%)에 비해 고등학생이 310명(52.6%)으로 약간 많았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281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도시 206명(35.0%), 군지역 102명(17.3%)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의 경우 조부모가정이 362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조모가정 203명(34.5%), 조부가정 24명(4.1%)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학업성적은 평균 2.69점(표준편차 1.14점)으로 나타나 대부분 중간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가구 경제수준은 평균 2.95점(표준편차 .99점)으로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81점(표준편차 .97점)으로 중간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nalytic sample

Variable		N	%
Gender	Male	292	49.6
	Female	297	50.4
School level	Middle	279	47.4
	High	310	52.6
Region	Large city	206	35.0
	Middle city	281	47.7
	Rural area	102	17.3
Family type	Grandparent	362	61.5
	Grandmother	203	34.5
	Grandfather	24	4.1
Variable	Min ~ Max	M	SD
Grade	1 ~ 5	2.69	1.14
Economic status	1 ~ 5	2.95	.99
Self-rated health	1 ~ 5	3.81	.97

Note. N=589.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에 주요변수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조손가정 청소년의 불안은 평균 4.43점(표준편차 4.71점)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한 집단(5.23점, 표준편차 5.27점)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3.92점, 표준편차 4.23점) 보다 불안 점수가 높았다. 또한 조손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평균 3.26점(표준편차 .97점)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한 집단(3.39점, 표준편차 1.00점)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3.17점, 표준편차 .95점) 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main variables

Variable	Total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No		Yes	
	M	SD	M	SD	M	SD
Anxiety	4.43	4.71	3.92	4.23	5.23**	5.27
Stress	3.26	.97	3.17	.95	3.39*	1.00
Depression	.31	.46	.26	.44	.37*	.48
Suicidal ideation	.15	.36	.11	.31	.23***	.42

Note. N=589. M=mean, SD=standard deviation. Anxiety: 0 ~ 21, stress: 1 ~ 5,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0/1) indicate proportions. Statistical differences by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were tested.

*p<.05, **p<.01, ***p<.001.

조손가정 청소년의 우울의 경우 약 31%가 경험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Table 3. The influence of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on mental health

Variable	DV: Anxiety		DV: Stress		DV: Depression			DV: Suicidal ideation		
	B	SE	B	SE	B	SE	OR	B	SE	OR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963*	.371	.182*	.080	.408*	.197	1.504	.910***	.260	2.485
Gender(ref.=male)	-1.076**	.362	-.263**	.078	-.421*	.194	.656	-.820**	.265	.441
School level(ref.=middle)	-.249	.357	-.008	.077	.131	.192	1.139	-.332	.252	.718
Grade	-.075	.157	-.022	.034	.031	.085	1.032	-.106	.114	.900
Economic status	-.724***	.188	-.069	.040	-.288**	.103	.749	-.188	.135	.829
Self-rated health	-1.607***	.189	-.268***	.041	-.436***	.100	.647	-.652***	.129	.521
Region(ref.=large city)										
Middle city	-.045	.393	-.063	.085	.069	.210	1.071	.105	.276	1.111
Rural area	-.037	.515	-.030	.111	-.049	.279	.952	.124	.368	1.132
Family type(ref.=grandparent)										
Grandmother	.165	.376	.063	.081	.146	.200	1.158	.193	.261	1.213
Grandfather	-1.088	.904	-.073	.195	.454	.476	1.575	.520	.609	1.682
Constant	13.197***	1.005	4.622***	.217	1.415**	.534	4.115	1.357*	.674	3.885
Model fits	F=14.553*** R ² =.201		F=8.986*** R ² =.135		$\chi^2=52.020^{***}$ Nagelkerke R ² =.124			$\chi^2=72.918^{***}$ Nagelkerke R ² =.202		

Note. N=589. Linear regressions for anxiety and stress and logistic regressions fo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DV: dependent variable,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OR=odds ratio. *p<.05, **p<.01, ***p<.001.

를 경험한 집단(37%)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2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손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경우 약 15%가 경험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한 집단(23%)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11%)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2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Table 3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은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했다. 모든 회귀분석에는 앞서 제시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먼저, 불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불안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14.553$, $p<.001$).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험한 조손가정 청소년 집단은 불안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B=.963$, $p<.05$).

다음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불안에 대한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적절했다($F=8.986$,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험한 조손가정 청소년 집단은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B=.182$, $p<.05$).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절했다($\chi^2=52.020$, $p<.001$).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험한 조손가정 청소년 집단은 우울을 경험할 위험성이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OR=1.504$, $p<.05$).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는 조손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절했다($\chi^2=72.918$, $p<.001$).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험한 조손가정 청소년 집단은 자살생각을 경험할 위험성이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OR=2.485$, $p<.001$).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별 구체적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손가정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및 청소년 손자녀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손가정 청소년 중 39%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손가정 청소년 중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불안과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고, 우울 및 자살생각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에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3]가 조손가정에서도 나타난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한부모가정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이 코로나 시기 동안 가정경제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외로움, 자살경향성과 같은 정신건강의 위험이 커졌다는 선행연구 결과[22]를 지지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조손가정 청소년도 경제적 악화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청소년이 가정경제 악화는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다양한 자원과 기회의 부족 외에 낙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한다. 그렇기에 우선하여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안전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조손가정 청소년을 선별해 낼 수 있는 학교, 관공서,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가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라는 낙인이나 심리적 위축감을 완화하는 접근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손가정 청소년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경험은 불안,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재난상황이라 불릴 만큼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른 삶의 환경이 주어진 만큼 민감한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도 다른 세대보다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코로나 시작 시점에 실태조사를 한 후 발생 1년 후에 정신건강 변화를 재조사한 결과,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부

정적 감정이 일상화되었고, 불안과 걱정,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지만, 감사와 평온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1]. 이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일상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다. 주목할 점은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등교중지에 따른 관계와 자원의 단절로 인해 답답함과 불확실성은 조손가정을 포함한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조손가정 청소년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내에서 부족한 자원의 연결을 확충·강화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 전문채널(청소년 상담 1388 상담서비스) 등으로 전문상담원과의 지속적인 연결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청소년의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자신과 변화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28]. 하지만 프로그램 제공할 때,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낙인효과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받게 되는 서비스로 인해 취약환경에 놓인 청소년에게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시기 동안 취약계층 청소년은 비대면 시기 동안 다양한 온라인 심리검사 등을 활용하며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취약계층 청소년의 대부분은 고립된 시간을 보내며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기는 질풍노도기로 심리정서적 변화가 크고 심리적 이유기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시기이다[29]. 따라서 보호와 감독의 부재 혹은 충분한 지도가 부족한 환경일 수 있는 조손가정의 청소년은 팬데믹 상황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발달과업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비대면 활동과 대면 활동을 적절히 혼합·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심리·사회적 여건에 놓인 청소년을 발굴하고 서비스 체계로 진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전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비대면 프로그램과 적절히 혼용하여 자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서비스 제공기관과 청소년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1] S. M. Lee. (2020. 5. 4). Over 50,000 grandparent-grandchildren households, welfare services tailored to grandparent-headed families are needed. *News of National Assembly ON*.
- [2] H. L. Chang. (2021). Educational opportunities deprived by COVID-19 and responsibilities for recovery: Focusing on low-income adolescents. *Joint Conference of Social Welfare*.
- [3] B. D. Shon & H. J. Moon. (2021). Who suffers the most financial hardships due to COVID-19?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73(3), 9-31. DOI : 10.20970/kasw.2021.73.3.001
- [4] J. H. Ryu et al. (2019). *Comprehensive child survey*. Sejong: KIHASA.
- [5] M. Seo. (2021). Youth issues caused by COVID-9 and social security net. *Spring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 [6] M. D. Snape & R. M. Viner. (2020). COVID-19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Science*, 370(6514), 286-288. DOI: 10.1126/science.abd6165
- [7] R. M. Viner et al. (2020). School closure and management practices during coronavirus outbreaks including COVID-19: A rapid systematic review. *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 4(5), 397-404. DOI: 10.1016/S2352-4642(20)30095-X
- [8] Y. S. Kim. (2014). The study on the level of psychosocial adjustment and related factors affecting to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living with custodial grandparents. *Forum For Youth Culture*, 37, 7-30. DOI: 10.17854/ffyc.2014.01.37.7
- [9] Y. Xu, M. Jedwab, N. Soto-Ramirez, S. E. Levkoff & Q. Wu. (2021). Material hardship and child neglect risk amidst COVID-19 in grandparent-headed kinship families: The role of financial assistance. *Child Abuse & Neglect*, 121, 105258. DOI: 10.1016/j.chiabu.2021.105258
- [10] UN. (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New York: UN.
- [11]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21). *One year after COVID-19, records for adolescents' mental health*. Busan: KYCI.
- [12] H. S. Kim. (2021). Changes in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fter COVID-19. *Conference of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13] M. A. Arden & J. Chilcot. (2020). Health psychology and the coronavirus (COVID-19) global pandemic: A call for research.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5(2), 231-232. DOI: 10.1111/bjhp.12414
- [14] J. D. Kwon. (2021).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Seoul: Hakjisa.
- [15] H. M. Yoon & H. J. Chang. (2012). Life with grandparents as parents :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6(2), 259-288.
- [16] H. S. Kim. (200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emotion and behavior in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17] M. Jendrek.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34, 206-216. DOI: 10.1093/geront/34.2.206
- [18] S. K. Kim.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grandparents on their grand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3, 275-295.
- [19] J. H. Nam & R. H. Lee. (2020). Is the COVID-19's impact equal to all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n income and poverty by employment statu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72(4), 215-241. DOI : 10.20970/kasw.2020.72.4.008
- [20] J. P. Ziliak. (2020). Food hardship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great recession.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42(1), 132-152. DOI: 10.1002/aep.13099
- [21] M. Y. Shim. (2020).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Medicine*, 95(6), 360-363. DOI : 10.3904/kjm.2020.95.6.360
- [22] M. S. Lee, S. H. Han, J. Y. Kang & J. B. Kim. (2021). The effects of household financial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on suicidal tendencies of adolescents: Application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2(2), 1-14. DOI : 10.35133/kssche.20210531.01
- [23]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The statistics of the 16th(2020)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Cheongju: KDCA.
- [24] V. La Placa, A. McNaught & A. Knight. (2013). Discourse on wellbeing in research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3(1), 116-125. DOI:10.5502/IJW.V3I1.7
- [25] WHO. (2001). *The world health report 2001-mental*

health: *New understanding, new hope*, Geneva, Switzerland: WHO.

- [26] R. H. Lee, C. M. Oh & H. S. Chae. (2019). The moderating effect of happiness on the influence of daily stress on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Soonchunhyang Journal of Humanities*, 38(3), 123-155.
DOI : 10.35222/IHSU.2019.38.3.123
- [27] R. H. Lee & H. L. Chang. (2017).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happi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Welfare*, 19(3), 109-132.
DOI : 10.19034/KAYW.2017.19.3.05
- [28] Y. H. Kim. (202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youth mental health in the Covid-19 disaster.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23(1), 139-157.
- [29] L. Steinberg & A. S. Morri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83-110.

장혜림(Chang, Hae-Lim)

[장학원]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박통합 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BK박사후과정 연구원
- 2014년 3월 ~ 현재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hlchang@sjs.ac.kr

이래혁(Lee, RaeHyuck)

[장학원]



- 2014년 10월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사회복지학박사)
- 2019년 7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아동가족정책

· E-Mail : raehyucklee@sch.ac.kr